

첫번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옷을 때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경찰 제복을 보고, 경찰로, 군복을 볼 때, 군인으로, 제복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지위와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번째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옷은 우리의 어떤 소지품보다 우리와 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와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나도 행하신 대로, 나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선'과 '그리스도의 덕'과 '그리스도의 지혜'로 옷을 입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품에 있어서, 덕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닮은 꼴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더 이상 모세가 준 율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는 또 상속자들 사이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존재들이라고 말할 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갈3:28)

하나가 된다는 말은 물론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도 서로 다르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가 다릅니다.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가 된다는 말에는, 사람과 사람의 막힌 담을 허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은 문화와 인종의 벽을 뛰어 넘는다는 말입니다.

2) 종과 자유인을 말합니다. 이 말은 경제적인 차이, 신분의 차이, 직업의 차이, 빈부의 격차가 교회에서 담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뛰어난 사람, 열등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3) 남자와 여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가장 허물기 힘든 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여자는 기본적으로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에, '복음'이 들어갈 때, 모든 그들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이 허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차별과 다름이 남아있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갈 3:29)

[최진영 목사]

[www.weppc.net](http://www.weppc.net) 홈페이지에서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 갈라디아서강해(11)

## Galatians 3:25-29

지난주 수요성경강해 2022년 9월 14일 (수)

파사데나장로교회



## 1 하나님의 자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초등교사 밑에 있었던 것과 같다. 율법 아래 있는 우리는 다 개인교사, 몽학선생에 있었던 것과 같다." 바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미성숙할 때에 누군가에게 의해서 강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그 때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당하게 하셨다는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 성숙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갈 3:25, 새번역)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 놀라운 깨달음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만 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

## 2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논지는 이것보다 깊습니다. 바울은 더 깊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양자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갈 3:26)

새번역 성경으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라고 번역했지만,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날 성 차별적인 언어를 생각하면, '자녀들'이라는 번역을 택해야겠지만, 그걸 때 우리는 당시에 말하고자 하는 숨은 의미, 그 진정한 맥락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문자 그대로를 이해할 때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수 백 년 전까지 대부분 그러했듯이, 딸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딸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즉,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에는, 단순히 성별을 구분하는 말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법적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에게는 금지되었던 것을 말이지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복음의 메세지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즉, 이 말은 "당신들은 모두 상속자들입니다"라는 말이라고 할

## 3 하나님의 상속자

말은 "당신들은 모두 상속자들입니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 쪽의 성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표현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그리스도에게는 신부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특정 젠더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여성으로 때로 남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라는 말에는 남자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여자 그리스도인, 아니 젠더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는 '아들'이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은 '상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물려받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물려받는, 하늘의 복과 기쁨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물려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우리 모두는 어떻게 여김을 받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을 이것을 다룬 말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바울은 옷을 입는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오래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옷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갈 3:27)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